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의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의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18일과 21일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의 전술 훈련을 지도하시고 훈련이 정말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군부대의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

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을 평양에 부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셨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솟구치는 격정

을 누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저어 답례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훈련으로 밤을 밝히고 새날을 맞으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높은 위훈속에 빛내어가고있는 군인들을 고무격려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체 참

가자들이 앞으로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더욱 역세게 준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자랑스러운 훈련성공으로 기쁨을 드린 영광의 시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전투정치훈련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조국을 선군의 총대로 굳건히 사수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민주공고준비위원회결성식이 1월 22일 김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민주공고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양드레 로케렐레 갈론다가, 부위원장으로서 민주공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공고-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 위원장 오메데 가스통 음보요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 발려 나갈것이다.

준비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집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혁

##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론적무기를 안겨주시었다. 또한 필승의 선군정치로 떨치시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었다.

김정일각하께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자주와 진보,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우리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 발려 나갈것이다.

25일 돌보 엔터프라이즈회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말레이시아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돌보 엔터프라이즈회사 사장 겸정치가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각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세계자주화위업과 인민의 행복,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그이를 세계정치원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횡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터 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집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할것이다.

한편 광명성절경축 로씨야사회계준비위원회가 1월 23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워드르 베드로브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에는 각 단체, 기관의 저명한 인사들이 망라되어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그리스, 체코, 로마니아, 스위스, 영국, 기네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도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었다.

본사기자

## 광명성절경축 행사

###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월 17일부터 23일 사이의 기간에 베닌, 싱가포르, 나이지리아에서 독보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조 책임자 빠스칼 존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리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독보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

여위한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강성대국의 불보라》, 《오늘의 평양》 등 우리나라 영화를 감상한 나이지리아의 각계 인사들도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정치원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만민을 감동시켰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은 자주와 진보,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제18차 김정일화축전 준비사업 활발

제18차 김정일화축전 준비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꾼들은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떠받들려 성대히 진행되는 이번 축전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절충의 꽃축전으로 빛내일 일념에 축전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여 더욱 붉게 피어난 김정일화》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종전과 달리 내용과 형식이 새로우므로 하여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충정의 세계를 잘 보여 줄세워인들의 태양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료해운성, 경흥시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꽃채배에 필요한 빛조절과 운송도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축전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에서 축전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 외무성, 대성지도국, 봉화지도국, 인민봉사총국 등에서는 형성도안에 반영된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전시대들을 특색있게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가정들에서도 이번 축전에 전시될 태양의 꽃들이 만발하고있다.

본사기자



— 중앙식물원 김정일화온실에서 —

## 군사적적대행위는

###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

지난 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해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인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는 결단을 내릴것을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현실을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한 요구이다. 그것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에서 크지 않은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적대행위의 중지에는 불신과 대립을 해소시키고 북남관계

개선, 그대까지 우리 민족은 사랑도, 산천도,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도 다 잃는 커다란 모험을 당하게 된다.

하기에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자국하고 위협하는 군사적적대행위의 전면중지를 제안한것이다. 관계정상화는 군사적적대행위의 중지로부터 시작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를 원한다면

공화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키 리존보》,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일반군사훈련이 아니라 철두철미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다. 이 연습에 참가한 침략군부대들에 할당된 타격목표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중요대상물이고 이 연습체제안에서 계획된 대규모적인 련합상륙작전이 평양강점을 논리게 되어있는 엄연한 사실만 놓고서도 군사연습의 침

략적성격을 뚜렷이 실증해지고있다

상대를 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도발중의 도발이며 가장 엄중한 군사적적대행위이다.

외세와 야합한 침략전쟁연습의 중지야말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될것이다. 군사적적대행위라는 기본장애물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때 진정한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며 바로 여기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방도가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인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꾸바의 브렌사 라피나통신과 레보호방송, 헬남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 몽골 문자메세지,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베루신문들인 《베루 21》, 《라 레부블리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사건본질을 모시고 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전문 또는

오지로 전하였다. 중국의 《료닝일보》와 동북망, 로씨야의 인터넷통신, 신문, 잡지들, 헬남 신문들인 《년전》, 《헬남 뉴스》, 벨가리아의 포쿠스통신과 신문들인 《트루트》, 《24시간》, 체코의 인터넷통신들, 로마니아신문 《뉴 유럽》, 프랑스잡지 《르 부앙》, 우루과이의 신문 《라 후벤투드》, 세.에게스36라지오 센테나리오방송, 뉴질랜드신문 《뉴질랜드 헤럴드》, 에티오피아 TV방송, 앙골라의 신문 《유르날 드 앙골라》, 국영TV방송, 민족라디오방송, 미국의 폭스뉴스, 신문 《워싱턴 포스트》,

관개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지름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온 겨레는 6.15통일시대를 통하여 이 철리를 절감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채택이후 남북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사이의 화해의 봄이 오고 끊어진 지역과 혈맥이 하나로 어지는 감격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북남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루어져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참으로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

본사기자

관개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관개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관개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본사기자



# 화해와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지금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받아 안고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불타는 일념으로 충만되어 있다.

더이상 민족분열의 역사를 이어갈수 없으며 하루빨리 분열의 고통을 끝장내야 한다는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 없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없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 돌리신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룩할수 있다.

북과 남이 불신하고 대결하는 상태에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역사는 북남대결의 격화로 얻을것

이란 분열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었다.

지난 1970년대 북과 남사이 7.4공동성명의 발표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가 펼쳐졌지만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동일적책등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또다시 악화되게 되었다. 또한 2000년 6월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 파렬구를 내고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어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에 특기할 일대 사변이었다.

이로 하여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어 온 반목과 불신을 가지고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변명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통일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북과 남사이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열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해내의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련합이 활발해지는 속에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대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어 조

국통일의 주체는 비상이 강화되었다. 6.15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못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의 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6.15시대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전면부정하고 대결시대로 되돌려세우려는 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등은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로 몰아넣었으며 동족사이 불과 불이 오가는 첨예한 대결을 빚어냈다.

제반 사실은 북남관계가 개선되어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될것이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현시기 북남관계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게 최악의 대결상태에 놓여있다.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에만 이루어질수 없다. 철두철미 서로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는것만큼 북과 남 모두가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불신하고 대결하는 상태에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역사는 북남대결의 격화로 얻을것

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날의 환희를 다시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북남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나간다면 동족들과 일사불란하고 통일만세를 목청껏 부르 그날은 앞당겨질것이다.

우리 공장 전체 노동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공개서한에서 지적한대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기 위한 애국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다.

평양석재공장 노동자 박길성

특히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우리 민족끼리리념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발전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인터넷페이지 《백두-한나》에 재중동포가 쓴 글이 실렸다.

글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민족사적인 과제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나라가 분열된 탓에 조국에 얼마나 가슴아픈 현실이 존재하고있는가.

반만년을 한과줄로 이어슬기로운 력사와 문화를 창조해오던 단일민족이 돌로 갈라져 근 70년간 대립과 대결속에 살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진정과 적극적인 화해노력에 의해 2014년에 들어와 따스한 봄빛이 얼어붙은 분열장벽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들도 동포에의 뜨거운 정과 노력에 감성이 되어 한겨울에 봄비를 내려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추운 1월에 내린 이 비를 어찌 무시할수 있었는가. 이 땅의 얼어 있는 대지를 포근히 적시주는 그 비를 맞으며 사람들은 울해에 북남관계에서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했다.

대환의 추위를 밀어내고 통일의 새봄을 재촉하는듯 비는 소리가 계속 내리었다.

이해의 첫비와 함께 통일의 촉촉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할 환희로운 그날도 반드시 오리라 굳게 믿어오며 나가는 출근의 첫걸음을 성큼 내짚었다.

본사기자 김철호



# 애국애족의 호소에 실천행동으로 응해야

\* 리훈혁 사회과학원 실장과 기자가 나눈 대답 \*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지난 1월 23일 남조선당국과 7년 23일,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는 군사적대행위가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되어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훈혁: 공개서한에도 명백히 밝혀졌지만 현시기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기본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상태이며 그로 인해 산생되는 군사적대행위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군사적대행위는 대결과 충돌을 낳는 온상, 북남관계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기자: 군사적대행위를 종식시키는데서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리훈혁: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해마다 벌리는 《키 리프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입만 벌리면 이 연습들이 《년례

적》이며 《방어적》이라고 하고있다.

《방어》의 간판을 단 군사연습에 어지간한 나라의 전체 무력과 맞먹는 방대한 진격수단이 동원되고 더우기 공화국의 중요대상물들이 타격목표로 지정되었다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올해에는 그 무슨 《금번사태》를 가상하여 1만여명의 병력을 가동하고주둔 미해병대의 최신헌수리차륙기까지 참가하는 대규모의 연합사육훈련도 벌여진다고 하며 그것이 평양강점을 노리고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제반 사실들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고 광고하는 이 전쟁연습들이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든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어떻게든 중지하는 길에 《합동》과 《협동》이 버릴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여 정 하고싶다면 우리 나라

평화나 령해, 령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고 충고하였다.

기자: 남조선당국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평화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자이고 민족이 바라는 통일대신 영구분열과 지배를 노리는 파렴치한 강점자이며 수천만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셋을 놓고는 누구나 우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면 우리 민족은 지금껏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와 인적자원을 잃는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는 이 엄중한 사태에서 공화국이 먼저 군사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이상 남조선당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화답하는것이 어느모로 보나 순리가 아닌가.

남조선당국은 군사적대행위를 제거해야 진정한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평화와 안정으로 담보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공화국의 정당한 호소에 실천행동으로 응해나서야 한다고 본다.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조치를 먼저 취하기로 한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결심과 노력이 얼마나 확고하며 진심어린것인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현재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된 조선반도에서 크지 않은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은 누구나 우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면 우리 민족은 지금껏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와 인적자원을 잃는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는 이 엄중한 사태에서 공화국이 먼저 군사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이상 남조선당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화답하는것이 어느모로 보나 순리가 아닌가.

남조선당국은 군사적대행위를 제거해야 진정한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평화와 안정으로 담보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공화국의 정당한 호소에 실천행동으로 응해나서야 한다고 본다.

# 북남의 노동자들도 힘을 합쳐

은 겨레를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부르는 공화국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은 우리 노동계급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공개서한의 끝줄마다에는 온 겨레가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할 때 북남관계개선에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명도 있다는 진리가 천명되어 있다.

조국통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바로 우리 민족이 제힘으로 이룩하여야 할 민족적위업이다.

조선민족의 피가 흐르고

들을 지닌 사람이라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민족성원이라면 마땅히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 동족에 대한 백해무익한 비방중상과 군사적대결을 갈장내고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제로 나선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도 6.15시대에 진행되었던 《북남노동자 5.1절통일대회》, 《북남노동자통일대회》 등의 감동깊은 화합

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날의 환희를 다시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 북남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나간다면 동족들과 일사불란하고 통일만세를 목청껏 부르 그날은 앞당겨질것이다.

우리 공장 전체 노동자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공개서한에서 지적한대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기 위한 애국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다.

평양석재공장 노동자 박길성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을 호소하는 남조선인민들

1월 25일 아침 출근길에 이르러 아바트의 현관문을 나서던 나는 문득 류다룬 거리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머리우에 철에 어울리지 않는 색색의 우산들이 펼쳐져있던 것이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우산이, 혹은 눈이 내리는가.

하늘을 쳐다보던 나는 떨어지는 비방울들을 보고 저 으기 놀랐다.

한겨울에 비가 내리다니. 그리고보니 새해 들어와 첫비인셈이다.

한해중 제일 출다는 대한 날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리는 비를 보니 따스한 봄이 성큼 눈앞에 온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이 비가 결코 날씨의 조화로만 오는 비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금 불신과 대결, 적대와 반목질서로 동도대처럼 팽팡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는 정조

**수필**

## 첫 비

이 민족분열의 비극적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결단과 숭고한 의지가 안아온 결과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은 통일운동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진통을 겪어왔던가.

년대와 세기를 넘어 지속된 분열의 력사는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었고 그속에서 적대과 대결의 벽은 높아져만 갔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도 혼돈해졌던 북남관계도 조선의 통일을 말갛아와 하지 않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등으로 인해 차갑고 뒤흔다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호

# 동족 화해의 진정 이념 넘치는 중대 제안

재중 동포가 주장

그 과정에 엄청난 전쟁도 겪었고 한가정속에서 단란하게 살다가 뿔뿔이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속에 한많은 세월을 보내다 눈을 감았다.

통일은 끊어진 혈맥을 이어민족사의 흐름을 바로세우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 계앞에 우뚝 서는 길이다.

그래서 일제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

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는 고귀한 명언도 나오지 않았는가.

력사적으로 우리 겨레의 통일문제를 리해관계의 저울추로 다루어온것은 다름 아닌 외세이다.

특히 미국은 자기 리해관계에 따라 우리 조국을 돌로 가르고 지금까지 조선의 통일문제를 철저히 정략적으로 리용하여온 민족분열의 원흉이다.

북남관계에 대결상태가 지속되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분열에서 저들의 막대한 전략리익을 추구하고있는 미국의 끈질긴 대조선정책때문임을 삼척동자도 알고있다.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설명철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며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제안하

고 이를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대담하게 선의의 손길을 먼저 내민 북의 중대제안에 어떻게 하나 대결의 현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동족화해의 진정성이 넘친다.

남측이 북의 선의의 중대제안에 어떻게 하나 오는가에 따라 동족화해나, 동족대결이나 하는 립장이 드러나게 될것이다.

은 겨레가 그리고 전세계가 남조선당국자들을 지켜보고있다.

본사기자

# 북의 남북관계개선의지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이 공개서한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남북관계개선문제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적의를 정식화하듯 규정해놓은것이다. 이는 《북남관계개선이자 곧 자주통일이며 평화변명》이라는 문장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남북관계개선문제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적의를 정식화하듯 규정해놓은것이다. 이는 《북남관계개선이자 곧 자주통일이며 평화변명》이라는 문장

나 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내고있다.

비방중상 전면중지와 군사적대행위 전면중지는 기본적으로 당위적요구라고 했다. 다음으로 정세적요구라고 설명했다. 공개서한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전쟁정경으로 치닫고있

는것은 공개서한의 구체적인 명사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공개서한은 《우리는 이미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벌써 5개년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하였다.》는것을 밝히고있다.

1월 24일 《로동신문》은 1면에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실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글을 《로동신문》 1면에 게재한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본사기자

#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종식되어야 한다

외세에 의해 국토가 분열되고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진지도 70년을 가까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도 분열된 상처의 아픔을 가사내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압력존재이며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주되는 세력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은 그 자체가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이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에 기여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강점군이다. 실권은 세계지배야망의 실현을 위해 조선반도의 절반방에 피묻은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로서

의 진면모를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철수문제에 평화로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에서 《유엔군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것은 이를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 결의를 수십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남조선에 강점한 미군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오늘도 우리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하는 로고리집단학살사건, 동두천녀인살박사건과 정부녀인행기살사건, 윤금이사살박사건, 두녀중학생살박사건 등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존엄을 유린한 범죄집단, 패륜아

들의 무리가 바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라는것을 알 수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온상이며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화근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공화국에 내놓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역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못된 언행과 군사적행위에 더욱더 매여달리고 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여론을 오도하며 《북의 핵위협이 문제》라느니, 《아시아지역안보의 최대우려는 북》이라느니 뉘니 하면서 북과 남의 대결상태를 더욱 부추기고있으며 해마다 벌려온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술한 땅크, 장갑차집단과 비행대편대를 비

롯한 새로운 해, 공군력량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온밀히 전개시키고있다.

한편 맹전시기의 낮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적야망실현을 위해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오늘날 미국의 처지를 놓고볼 때에도 당연한 일이다.

《국제헌법》임을 자처하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만을 일삼아 온 미국은 오늘에 와서 막대한 군사비지출과 끝없는 경제침체의 후과로 하여 더는 헤어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군을 주둔시켜놓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으로 불필요한 소모만을 일삼고있다. 이것은 결코 미국에게 리로운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에 침략자의 오명을 쓰고 쫓겨

나는것보다 미국이 임버처럼 외위대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스스로 철수하는것이 나올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역사의 흐름으로 보나 민족공동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찬란한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에물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으로써 민족의 평화변명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리광성

# 남조선당국은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재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지지하여 재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가 1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중대제안을 내놓는데 이어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것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단위라고 지적하였다.

재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는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민족의 안전과 평화변명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으로 열렬

히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남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군사적적대행위를 하지 말데 대한 제안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반도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 군사적방법으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의세와 결탁하여 벌리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 민족의 머리위에 핵재난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온 민족을 참화속에 몰아넣을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 설세없이 벌어지는 속에서 어떻게 접촉과 대화의 평화화환경이 마련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은 평양강점에

목적을 둔 대규모전쟁연습이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억지주장을 그만두고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1992년에 조미고위급회담을 시작하면서 《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했던 전례도 있는것만큼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전체 재조선인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에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공화국이 설세없이 벌어지는 속에서 어떻게 접촉과 대화의 평화화환경이 마련될수 있겠나.

본사기자

#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을 무죄석방할것을 요구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정보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정보원 내란음모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1월 27일 내란음모사건관련자들에게 대한 석방을 요구하여 수인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통합진보당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 관련자전원을 무죄석방할것을 요구하

는 탄원서에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민중 10만여명이 서명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내란음모사건이 날조된것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진보당과 그 무수 《지하혁명조직》에 대한 해체를 운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공안세력이 이번 사건조작으로 노리는것은 국민들

사이 리념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 땅에서 이런 조작극과 공안탄압이 중단되기를 바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주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종북》소동의 희생물이 된 구속자들을 모두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정보원사건에 대한 특검실시를 주장

남조선의 참여연대, 진보연대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규탄 비상시국회의》가 1월 25일 서울에서 초법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청와대가 부정선거를 계속하려는 목적일때 그 관련자들을 감싸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보원사건에 대한 특검으로 부정선거의 진상을 해결하지 않는 한 6월에 예정되는 지방선거는 밀박진 독에 물붓기식 선거가 될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정책실장은 부정선거의

내막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하면서 초법의 힘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정보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내란음모 재판이 진행된 지난 기간 정보원이 내놓은 결정적증거라는 특목내용은 외곡과 거짓으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보원의 사기극으로 하여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정보원사건에 대한 특검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총파업투쟁으로 철도로조탄압을 분쇄하자

##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각 지역본부들 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각 지역본부가 1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지역의 17개 주요철도역에서 기자회견들을 가지고 철도로조탄압과 철도민영화중지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

은 철도로조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성원들이 구속되고 철도공사가 조로인들에 대한 대량징계조치를 추진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2월 25일의 총파업투쟁으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하며 민영화를 저지시킬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어 철도로조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청구하겠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때 철도공사 사장이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자기를 출세시켜달라고 청탁하는 불을 빌린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민영화를 반대하여 싸운 철도로조의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 집권자와 함께 철도공사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남조선의 공공부문 노동자들 선언 발표

남조선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들이 1월 23일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규탄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빚을 줄이고 경영을 개선한다고 떠들어대고있지만 그 진짜목적은 저들의 정책실세가 초래한 후과를 부정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전기, 도로, 수도 등 각종 요금을 올림으로써 공공기관들의 빚을 국민들에게 들씌우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하게 될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것을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선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의료민영화는 잘못된것이라고 주장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당소속 《국회》의원이 1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개인의 돈을 벌 목

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기어코 성사시키려고 하고있는데 대해 그는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 누가 범죄자인가?

지난 1월 19일 중국의 폭풍강성 할빈에서 자리잡고있는 할빈역에서 《안중근의사기념관》이 개관되었다. 력사가 잘 알려진바와 같이 안중근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전대미문의 식민지통치를 강요하던 1909년 10월 26일 침략의 원흉을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처단한 조선민족이 자랑하는 반일애국렬사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제가 그의 리로운 장거를 높이 평가하시어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우시도록 그를 형상한 영화도 조각상형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어 민족의 가슴속에 애국자로 고이 간직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인민뿐아니라 중국인민에게도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강요한 침략의 괴수 이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렬사의 장거를 찬양하고 길이 전하려는 인류의 량심과 의지의 발현으로서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세워진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은 지금 력사에 침략의 원흉으로 오명을 남기기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에 대해 일본의 초대수상을 죽인 《범죄자》라느니, 《레로분자》라느니 하면서 그를 심히 중상모독하며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세워진것에 대해 시비질해나섰다. 과거 일본의 침략력사를 전면부정하고 군국주의가 팔수에 찬 일본의 파렴치성을 적라라하게 보여 주는 이러한 망동들은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중국인민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이 안중근렬사를 가리켜 《범죄자》라고 떠들고있지만 진짜범죄자로 력사에 락인책헌자는 전대미문의 국가레로행위를 감행한 이도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다.

이도 히로부미로 말하면 명치시기 일본군국주의우두머리로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세계평화의 극악한 파괴자이다. 1868년 명치정부수립후 일본에 내각제도를 창설하고 초대총리로 되어 명치정부의 전권을 띤 이자는 1894년 조선에 침략무력을 총동시시켜 갑오농민전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고 부르조이개혁을 파란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이자는 1905년 《투과대사》의 명목으로 조선에 기여하여 군사적공갈과 협박의 방법으로 《을사조약》을 날조하였고 그후 조선통

감부의 첫 통감으로 들고있던 야만적인 폭압통치와 수탈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에 대한 류례없는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이처럼 이도 히로부미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전체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였기에 안중근은 할빈역에서 그에게 조선민족의 원한서린 총탄을 안기 《조선만세!》를 소리높이 외쳤다.

이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렬사의 장거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조선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일제에 대한 쌍이고쌍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안중근에 대해 식민지파압박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준 의사로 길이 추억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특검전법자이며 조선과 아시아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이도 히로부미를 《민족적영웅》으로 추어올리면서 안중근에 력사를 모독중상하는것은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재침의 길에 기여이 나서려는 범죄적목적의 산물이다.

이러한 일본에 온 세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다.

어지러운 과거력사를 재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군국주의부활책동은 일본을 국제적고립속에 파멸로 더욱더 몰아갈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지난 1월 25일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신입회장이자 취입기자자취하는 일제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느니, 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느니 하는 따위의 나발을 마구 불어댔다.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수 없는 망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전쟁시기에 감행된 범죄들은 어느것이냐 할것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이다.

때문에 국제법은 민간인들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해는 대량학살에 대한 죄로, 민간인들에 대한 노예화, 고문, 강제매춘 등은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있다.

더우기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그 어느 나라 침략군이 감행한 성범죄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조선강점시기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구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든것은 중앙으로부터 말단

행정단위에 이르기까지 정령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장악하고 엄격히 감시통제하는 일제의 식민지사과초 폭압체제를 떠나 절대로 실행될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26일 서울의 어느 한 병원에서 일본군성노예로 온갖 고초를 겪은 황궁자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13살때 강제로 일본군사에게 끌려가 만주의 일본군부대에서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다가 해방과 함께 겨우 풀려났수 있었다.

그러 남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과로 일생동안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살면서 울울하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황궁자할머니는 생전에 다른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정부에 지지는 과거피악에 대해 배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끝내 사회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일본의 성노예만행은 조선에서만 감행된것이 아니다.

일제는 저들이 도발한 태평양전쟁 때 강점한 여러 지역과 나라들의 녀성들도 일본군성노예로 마구 학대하였다.

지난해 11월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BC급 바라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문서는 그에 대한 대표적실례이다.

1944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감행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를 수룩한 이 문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네메란드너성들을 성노예로 만든것이 다음인 일본군이라는 일본군중장의 실토가 그대로 적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K신입회장이 력사에 엄연히 기록된 성노예피악을 부정하는것이야말로 인류의 량심과 도덕에 대한 우롱이고 잔혹한 도발인것이다.

본사기자

문제는 이것이 한갓 그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라는데 있다.

이번에 이자는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것을 NHK가 왼쪽이라고 말하는것은 없다.》면서 자기의 나발이 일본당국의 공식립집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시대의 거물이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언론, 더구나 공영방송의 회장이라는자가 이렇게 과거 죄악부정과 배상거부, 군국주의 부활에 발광하는 아베정권의 들쭉거리가 되어 앞장서 나팔을 불어대고있으니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끌려가고있는지 너무나 명백하다.

하기에 지금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물론 《동맹》을 제창하는 미국까지도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과 과거사부정행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력사부정,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의 거부, 도발적인 군국주의부활책동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고립의 길,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성증삼

# 극우익분자의 망발을 비난

1월 27일 남조선 《MBC》방송이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력사를 외곡하는 일본정치인들을 비난하였다.

방송은 얼마전 일본군성노예피해자가 한많은 생을 마쳤다고 강조하였다.

13살때 일본군사에게 의해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학대를 당한 그는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결혼도 못한 채 평생 홀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바란것은 일본정부의

진정어린 사과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때 일본의 NHK방송 신입회장이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하여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느니, 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느니 뉘니 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망언이라고 비난하였다.

일본군이 정령지에서 강제로 녀성들을 랑치하여 《위안소》를 운영하였다는것은 이미 일본정부도 인정

한 력사적사실이라고 하면서 방송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반인륜적범죄를 부정하는 외곡된 력사관을 가진자가 한 나라의 공영방송 회장이 라니 한심한 일이다.

《731》이 적힌 비행기에 올라 웃고있던 일본군사상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또다시 떠오른다.

이처럼 정신간자들이 일본열도를 어디로 끌고갈지 정말 놀려된다.

본사기자



성노예만행을 정당화하는 일본극우익세력의 망발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세계 일류급으로 건설된 마식령스키장

### 마식령스키장의 눈부신 화폭이 말해주는것은...

희망찬 2014년의 첫 아침은 류다르게 밝아왔다. 지난해가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린 강국의 기쁨으로 밝아왔다면 올해는 행복과 문명의 제일경-마식령스키장으로 동이 났다. 문명국의 또 하나의 상징 마식령스키장을 보며 누구나 환희에 휩싸였다.

#### 마식령의 협한 산줄기에 인민이 누릴

무엇보다 올해에 공화국인민들이 누리게 될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휘황한 전경도이다.

공화국은 부부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인민들에게 최첨단 문명세계의 설계도를 펼쳐주었다.

체육과 관광, 휴식을 위한 종합적인 대중체육관광기지인 마식령스키장은 문명과 건축의 최첨단을 돌파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져 있다. 얼마전 마식령스키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낸 주요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들은 한결같이 《훌륭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은 조선의 문화적특성, 세계적특성을 다 보여주고있다. 즐거움을 한껏 누리였다.》 하던데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은빛폭포마냥 뿜어내린 눈부신 스키주로들과 썰매주로, 스케이트장들, 산속의 궁전같은 최상급의 호텔들과 스키봉사시설들, 줄줄이 뿜어내린 주로들에서 회열에 넘쳐 스키를 타는 모습이 세계에 던진 파문은 컸다. 이해의 첫 아침에 펼쳐진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통하여 세계는 무엇을 보았는가.

#### 문명의 높이

스키는 가장 고급한 운동, 사치한 운동종목이라고 말한다. 스키장건설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스키라는데 필요한 장구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비싸 아무 사람이나 싼뚝 스키를 탈 생각을 하지 못하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지만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이런 근심걱정 모르며 공화국의 남나로소가 터뜨리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산발울 울리고있다. 마식령의 아아한 대화봉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도시와 마을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근로하는 평범한 인민들이 가장 고급한 문명세계에 성취를 들어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과 2014년이 교차되는 분기점에서 마식령스키장이 개장

된것은 올해에 공화국에서 펼쳐질 인민의 행복상을 그려보게 하는 한폭의 명화라고 할수 있다.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조선에서 창조된 마식령의 새 문명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마침내

#### 최대로 빨리, 훌륭하게

에 완공하고 새해의 첫 아침에 스키를 타는 인민들의 행복찬 모습을 펼쳐보았다.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다시금 보여주었다. 세상을 놀래운 《마식령속도》창조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마식령속도》라는 말이 처음 알려진것은 지난해 6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호소문에서였다. 그이께서는 호소문에서 인민건설자들이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때 대한 크나큰 믿음과 담력을 안겨주시었다.

이 호소문을 불세로 하여 새로운 비약의 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길들이 온 나라에 타탄지게 되었다. 특히 마식령지구에서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이 인민들

과 약속하고 세계앞에 섰던 시간은 순간도 드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말도 쉬어넘는다는 마식령의 가파로운 산발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뚫아오면서 불이 번쩍나게 공사를 다그쳐 스키장건설을 최단기간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하였던것이다.

지금 공화국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고있다. 세계는 조선이 올해에 또 어떤 놀라운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낼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해야 할 일은 아름답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정도가 있고 그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실현해가는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어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이 이 땅 가는 곳마다에 차넘치고있다.

《마식령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꿈과 리상을 최대로 빨리,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실현할것이다!

새해의 첫 아침에 펼쳐진 마식령스키장의 눈부신 화폭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 홍범식

장기 귀뿔한거라네.》

직접 물이군이 된 종현반장이 가볍게 재책을 날렸다.

꽃수레가 가볍게 굴러가기 시작하자 뒤에서는 와와- 하는 사람들의 열띤소리와 박수소리가 따라왔고 멀리 앞에서는 꽃송이며 꽃꽃이를 휘두르며 달려오는 다른 작업반사람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드디어 새끼를 낳았다. 어보게 인정반장, 정말 수고했네. 명옥이도 그렇고... 지금 동물원 온통 《평화》에 대한 소리뿐이야. 자, 빨리 나가세. 내가 무얼 준비했나 보라구.》

영문도 모른채 종현반장에게 끌려나간 나는 사동밖에 나서자마자 굳어져버렸다.

종현반장이 언제 대기시켜 놓았는지 아름답게 장식된 꽃수레가 작업반실앞에 서있었던것이다.

꽃수레속에서 남편이 빙그레 웃고있었고 세찬 장난꾸러기들인 두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엄마를 찾고있었다.

《자, 어서 타라구. 《평화》의 후대를 받아낸 명옥동무를 온 세상에 자랑해야지.》

종현반장이 등을 떠밀어 수레에 태우려 하자 나는 얼며 뛰었다.

《반장동지, 이진...》

내가 타지 않으려 하자 급해난 종현반장이 강제로 떠밀며 속삭거렸다.

《실은 이게 다 자네네 반

### 단편 소설: 순결한 마음 (10)

글 주광혁, 그림 김윤일

4

《됐다, 순애야 이젠 일어나거라. 그렇게 감격스러우면 너도 자식을 낳아보지 그래.》

릉도 무뚝뚝하게 하는 반장이 한마디 하자 순애의 얼굴은 순간에 앵두빛이 되고 말았다.

《에? 반장이어선 정말...》

도트룩한 입술을 사려문 순애였으나 그의 눈은 부끄러움과 열연 흥분으로 웃고 있었다.

《월 그래, 순애야. 새 생명을 낳는다는것이 얼마나 환희로운것인지 아니? 또 그런것은 반장동지같은 남자들은 아무리 바래도 경험해볼수 없는 우리 녀성들의 특권이란다.》

나까지 한마디 던지자 순애는 아예 몸둘바를 몰라다가 반장과 나의 잔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 다독임같은 순애의 주먹에 잔등을 맞고 나는 사랑스런 눈빛으로 《평화》를 바라보았다.

마치도 그렇지? 하고 물어보는것 같은 내 눈빛에 부지런히 새끼들을 활아주고있던 《평화》가 영문을 모르겠다듯 고개를 들었다.

사동복도에서 누구인지들 말하는 순애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을 벌럭 열고 말사양관리반의 종현반장이 들어섰다.

《드디어 새끼를 낳았다. 어보게 인정반장, 정말 수고했네. 명옥이도 그렇고... 지금 동물원 온통 《평화》에 대한 소리뿐이야. 자, 빨리 나가세. 내가 무얼 준비했나 보라구.》

영문도 모른채 종현반장에게 끌려나간 나는 사동밖에 나서자마자 굳어져버렸다.

종현반장이 언제 대기시켜 놓았는지 아름답게 장식된 꽃수레가 작업반실앞에 서있었던것이다.

꽃수레속에서 남편이 빙그레 웃고있었고 세찬 장난꾸러기들인 두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엄마를 찾고있었다.

《자, 어서 타라구. 《평화》의 후대를 받아낸 명옥동무를 온 세상에 자랑해야지.》

종현반장이 등을 떠밀어 수레에 태우려 하자 나는 얼며 뛰었다.

《반장동지, 이진...》

내가 타지 않으려 하자 급해난 종현반장이 강제로 떠밀며 속삭거렸다.

《실은 이게 다 자네네 반

화》를 위해 지성을 바쳐온 자네와 자네부부에게 온 나라가 보내는 축복일세.》

나는 뜨거운것이 고이는 눈가로 손등을 가져가며 속으로 웅했다.

(아닙니다. 이진 단순히 우리 부부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없이 도와준 반장동지나 《평화》와 《통일》을 보며 하나될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던 사람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안아온 결실입니다.)

호느낌소리가 새어날가보



(고맙습니다. 반장동지...)

나의 마음속인사에 반장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있는것 같았다.

(아닐세, 이진 내 혼자 보내는 축하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지성을 바쳐온 자네와 자네부부에게 온 나라가 보내는 축복일세.》

나는 뜨거운것이 고이는 눈가로 손등을 가져가며 속으로 웅했다.

(아닙니다. 이진 단순히 우리 부부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없이 도와준 반장동지나 《평화》와 《통일》을 보며 하나될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던 사람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안아온 결실입니다.)

호느낌소리가 새어날가보

### 성황을 이룬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지난 1월 23일에 개막된 제19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이번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체육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경기마다에서 높은 정신력과 체육기술,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고있다. 모든 참가단체들이 4개부류로 나누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배구, 탁구, 룽구, 태권도경기 등을 진행하고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고있는 탁구경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관람자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있다.

탁구경기는 단식과 복식, 단식경기방식의 단체전으로 진행되고있다. 탁구경기에 출전한 많은 선수들이 자들의 특기와 전술을 잘 살리고 완강한 방어와 공격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선수들이 묘한 처널기와 강한 걸어치기 등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줄 때마다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체육관이 들썩이게 하는 응원도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었다.

탁구경기에 출전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대중체육활동에서도 언제나 앞장서 달려 왕성한 열정으로 오늘의 영웅적진군에서 투쟁의 기수, 창조자 선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뜨거운 열의와 전투적기백을 잘 보여 주었다.

태권도전당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운동인 태권도경기가 진행되고있다. 태권도경기는 틀과 호신경기로 진행되고있다. 매 팀 선



### 민족유산보호관리를 짜고 든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력사유적과 유물을 잘 관리하고 오래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올해는 오랜 세월 신화적 존재로만 알려졌던 단군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고 시조릉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단군릉이 새로 훌륭히 개건되고 어버이장군님께서 개건된 단군릉을 찾아주시었던 20년을 맞게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계기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올해에 단군릉을 비롯한 력사유적들과 민족유산들에 대한 보수와 관리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특히 단군릉보수를 빠른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첫 두주일 사이에만도 그와 관련한 현지회의를 2차례 걸쳐 진행되고 그에 따르는 부문별 협의회와 지도국적인 토의사업을 10여차례 걸쳐 진행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일군들이다.

이들은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설계를 비롯한 모든 공사준비를 선행시키고 2월부러는 공사에 진입하기 위한 단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평양민속공원 2단계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공사에서 제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 부서간 협동작전을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들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높은 책임성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새해 첫시작부터 기세좋게 내달리는 이들의 조직사업으로 하여 민족의 귀중한 력사유적과 유물들을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 목욕을 할 때 주의할 점

과 같은 집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첫째로, 배가 부를 때와 고를 때에는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많이 먹고 목욕을 하면 뇌와 배안의 혈액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게 된다. 배가 고를 때 목욕을 하면 저혈당이 생겨 허탈증으로 졸도할수 있다.

둘째로, 물의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물의 온도는 체온(35~37°C)과 비슷한것이 제일 좋다.

목욕은 피부위생을 보호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잠을 잘 오게 하는 등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목욕을 제대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고 지어 병을 재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목욕을 할 때 다음

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무슨 말을 더 한단 말인가.

나는 흐려지는 눈길을 들었다.

문득 새끼들을 에무해주며 바라보던 《평화》의 눈빛이 안겨왔다.

그 눈빛속에 자신은 어떻게 비개있을가 하고 생각했던 문이 뚜렷한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또한 그것은 환희였다. 인정아비나 순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쳐온 그 지성은 결코 진도개들의 사양관리가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온 민족이 그리도 갈망하는 평화통일의 길에 바쳐가는 우리의 지성이었고 그 길에서 찾는 삶의 보람이었다.

나는 벽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말했다.

《정말 기뻐요. 《평화》가 《통일》의 후대를 낳았어요! ... 세상에 대고 소리쳐 알리고싶어요.》

째- 째- 종현반장이 호기있게 소리쳤다.

말들이 트레질소리와 함께 내음을 안고 달려기 시작했다.

장수봉마루에 솟아오른 아침햇빛속으로 꽃수레는 힘차게 내달렸다.

(끝)

### 성적을 회복하는 간편방법

—베개를 베지 않고 누워 두주먹을 허리밑에 대고 두 발바닥을 합쳐 무릎을 구부린채 양쪽으로 힘껏 벌린다. 이 자세로 100까지 세는 동안 있다.

—넙적다리과 아래배의 경계선 즉 명음이 서는 곳과 양쪽저드랑이의 움푹한 곳을 각각 10초씩 5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준다.

### 겨울철 폐 보호

겨울철에 폐를 손쉽게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코를 비비는 방법

두 엄지손가락바깥면을 서로 비벼 뜨뜻한감이 나도록 한후 그것으로 코마루와 코방울양쪽을 아래위로 30번 안마한다. 다음 코방울양쪽의 영양혈부위를 15~20번 안마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루에 한두번 안마하면 코의 내한능력을 높여 코가 막히는 증상을 막을수 있다.

② 호흡법

저녁식사를 한 후 2시간 지나 공기가 맑은 바깥에

나가 10분정도 걸다가 두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선다. 이때 두손은 서로 겹쳐놓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배꼽으로부터 3cm 아래부위에 놓는다. 눈길은 수평방향으로 향한다.

그리고 온몸의 긴장을 풀고 배를 안쪽으로 당기면서 숨을 들이킨다.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긴장을 풀면서 숨을 들이킨다. 이렇게 30분정도 숨쉬기를 반복한다.